conojaya

2021년 1월 29일 금요일

That the sweeping and filth of houses be daily carried away by the

그런데 나에게 한 남자가 찾아 왔다. 사무적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. 그는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다. 그는 나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다. 그는 나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다. 그는 나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